

IT-SoC 2005 &

차세대PC 산업전시회

지난 11월 초 COEX에서는 IT-SoC와 차세대PC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살펴 볼 수 있는 <IT-SoC 2005 & 차세대PC 산업전시회>가 열렸다. 올해 행사는 국내 유일의 IP/SoC 전문전시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외 업체들의 관심도 차츰 높아져 국제전시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림 1> 'IT-SoC 2005 & 차세대PC 산업전시회' 개막식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IT-SoC 분야 57개 업체, 차세대PC분야 17개 업체 등 총 74개 업체가 15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였으며, 1만4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 작년에 비해 두 배의 외적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작년에 비해 체계화되고 타겟팅화된 홍보 전략이 큰 작용을 했다. 주최측에서는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초청 바이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최우선 홍보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IT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펼쳤다.

전시회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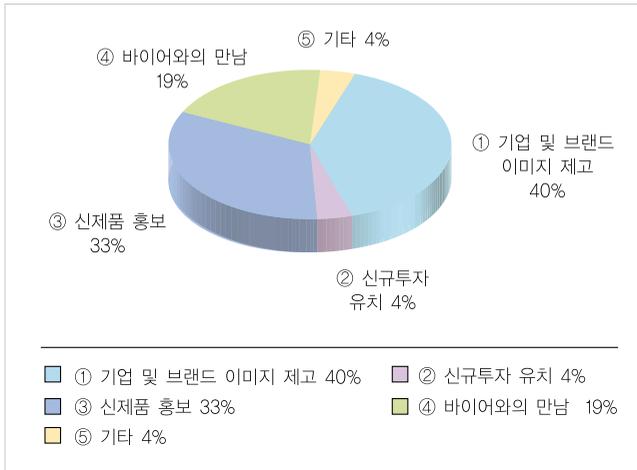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IT-SoC협회에서는 이번 행사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내년도 전시회에 반영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전시참가의 목적

전시참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참가기업들은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40%)와 '신제품 홍보' (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통상적으로 전시회를 기업과 제품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3)



<그림 2> 전시장 내부 광경



〈그림 3〉 전시회 참가 목적

2. 행사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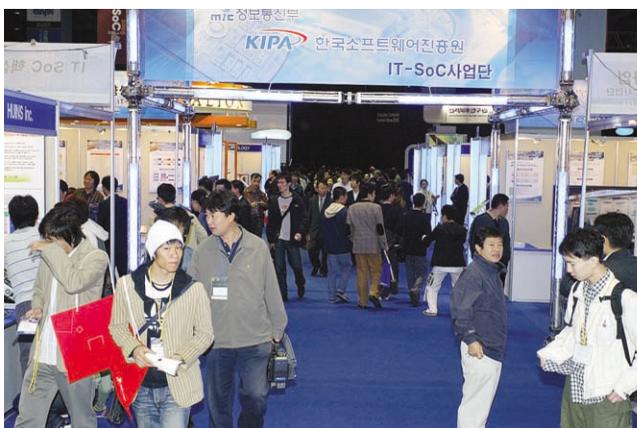
행사 전체에 관해 세부적으로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았다. 보통을 3점으로 놓고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보통(3점) 이상의 평점을 기록했으며, '협회 및 사무국의 지원'과 '부스 위치 및 배열'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부대행사와의 연계' 부문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는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리는 장소가 전시장과 너무 멀어 각 행사장 간 이동이 용의하지 않았으며, 전시장 내부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던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와 SoC 로봇위가 매우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 SoC 전시회는 전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상호간의 연관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표 1〉 행사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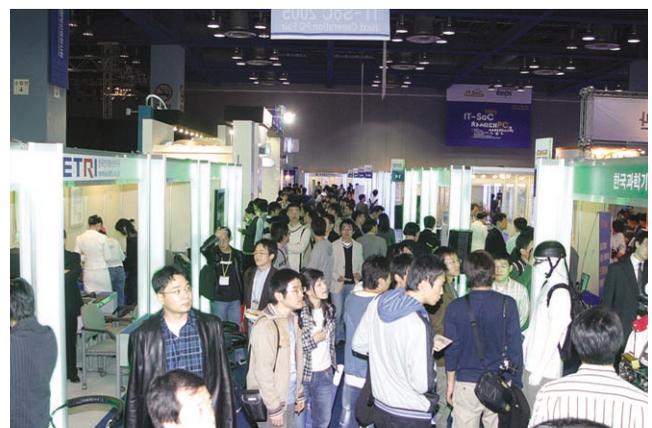
| 내 용 | 평 점 |
|------------------|------|
| A. 행사 참가 성과 | 3.18 |
| B. 협회 및 사무국 지원 | 3.65 |
| C. 행사 기간 및 시기 | 3.12 |
| D. 전시장 규모 및 위치 | 3.12 |
| E. 전시장 장치 및 비품 | 3.18 |
| F. 부스 위치 및 배열 | 3.71 |
| G. 행사 안내 및 홍보 | 3.06 |
| H. 전시참가비용(부스비 등) | 3.47 |
| I. 부대행사와의 연계 | 3.00 |

3. 내년도 참가 여부

내년도 전시회에 참가 하겠다는 가라는 질문에 응답 업체의 47%가 내년에도 현수준으로 참가하겠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53%는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참가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원하는 바이어의 방문이 적어서'가 53%, '올해의 성과 미흡'이 33%, '전시회의 성격이 자사와 맞지 않음'이 11%로 나왔다. 제정상의 어려움이나 전시할만한 아이템의 부재 등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불참 사유를 든 경우는 없었으며, 이는 불참 의사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당해 전시회의 참가로 인한 성과에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외에 참가업체들의 종합의견을 묻은 결과 비즈니스 상담회와 전시회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SoC 관련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의 흐름과 시장 동향을 파악해 볼



〈그림 4〉 전시장 내부 광경



〈그림 5〉 전시장 내부 광경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전시장 내부에 설치된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장의 소음, 전시장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중고생 관람객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했다.

IT-SoC 2006 계획

내년 전시회는 올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컨퍼런스를 학생 논문 위주의 발표보다는 시장 동향과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회도 중국 중심으로만 개최되었던 것을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국가로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T-SoC 전시회가 해를 더할수록 우리나라 IT-SoC산업의 발전의 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전시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2005 IT SoC 대상

우수한 SoC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IT SoC 대상이 2004년에 이어 2회를 맞았다.

대상과 신기술상 시상식은 'IT-SoC 2005' 전시회 개막식에서 거행됐으며, 영예의 대상으로는 토마토엘에스아이의 'QVGA급 휴대폰액정고동 원칩'이, 신기술상으로는 매크로영상기술의 'HD급 고화질 디인터레이서칩'이 선정되었으며 두 상 모두 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우수상은 'SoC Night 2005'에서 거행됐으며 삼성전기의 '모션센

서 IC'와 위즈네트의 'W3150A'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IT-SoC협회 장상이 수여됐다.

비즈니스 상담회

이번 "중국 시스템 업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LENOVO, 보천그룹, TCL, 중흥통신, KONKA 등 13개 중국 IT업체의 18명의 바이어가 대거 초청되었다. 여기에 토마토엘에스아이, 엠씨에스로지, 이엠엘에스아이, 디스플레이칩스 등 20개의 국내 SoC전문기업이 상담에 참가해 총 10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총 3,4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250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상담회 이후에도 미팅을 가졌던 양국 기업들이 방문 상담과 제품 테스트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림 8〉 비즈니스 상담회 현장



〈그림 6〉 '2005 IT SoC대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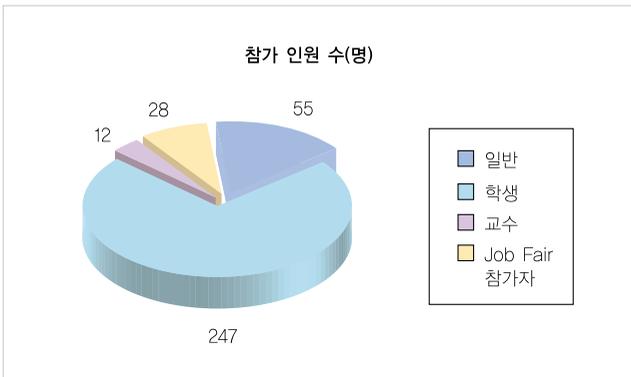


〈그림 7〉 '2005 IT SoC대상' 시상식

〈IT-SoC 2005 컨퍼런스〉

SoC설계전문 엔지니어와 석·박사 학생들의 논문발표를 통해 IT SoC 기술 및 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IT839 성장동력별 선도기술개발 과제발표를 통하여 연구개발 경과의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11월 3일~4일간 'IT-SoC 2005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컨퍼런스 개최 첫째 날에는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RC 과제 3개 대학의 논문 36편이 발표되었고, 둘째 날에는 IT-SoC전공 인증과정 석·박사 학생들의 졸업 논문을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나누어 총 178편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IT-SoC 2005 컨퍼런스에는 교수, 학생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하였고, 차세대 PC 부문의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되었다. IT-SoC사업단은 이러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SoC분야의 활발한 기술 및 정보 교류와 SoC 기술개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IT-SoC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석·박사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SoC전공인증과정 Job Fair



〈그림 9〉 컨퍼런스 참석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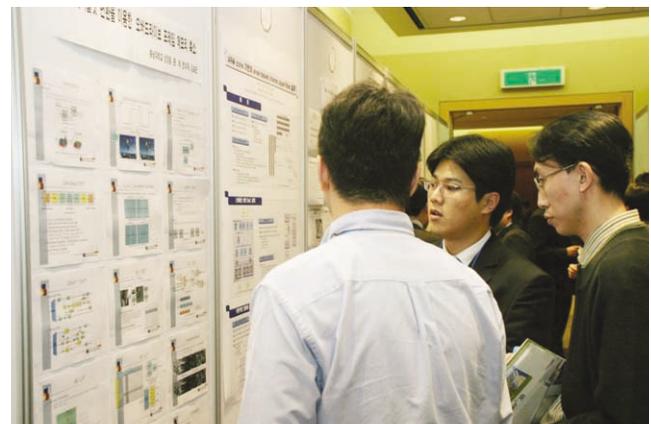
〈그림 11〉 IT-SoC전공인증과정 졸업논문 발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SoC사업단은 지난 11월4일 IT-SoC전공인증과정 석·박사 학생들의 졸업논문발표와 SoC기업간의 채용면접을 연계하여 우수한 인력 수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oC 설계인력 Job Fair'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논문발표자를 비롯한 IT-SoC전공인증과정 학생 240명과 IT-SoC사업단 인력양성 후원 기업인 LG전자, 엠택비전 하이닉스반도체, 토마토엘에스아이 등 SoC기업 26개간의 현장 채용면접이 이루어졌다.

SoC 설계 인력난에 고충을 겪고 있는 SoC 중소기업들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이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면접이 가능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랬고, 참여 학생들은 졸업논문발표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고 개개인의 전공분야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SoC기업들의 면접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업단은 최초로 진행했던 Job Fair 운영상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사전 홍보 등을 강화하여, SoC기업-대학간의 원활한 SoC 설계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 10〉 IT-SoC 과제 논문 발표



〈그림 12〉 전공인증과정 논문 포스터 발표



<그림 13> 후원기업 면접



<그림 14>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의 한 장면

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

인도양홀 내 특설무대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가 개최되었다. IT와 패션의 접목을 통해 진행된 이번 패션쇼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유비쿼터스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생활 환경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의 pda, 스마트폰 등의 smart handheld device 들과 스마트 입력장치 등의 다양한 제품은 물론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과제의 기술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패션쇼로서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 정도와 방향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개막식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축사와 더불어 모델과 함께 웨어러블 컴퓨터를 착용하고 시연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많은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그림 15> 로봇워 본선 진출 팀

지능형 SoC 로봇워 & 태권 로봇 2005

SoC 로봇워 2005

2005년 4월 1일 참가팀 접수를 시작으로 설명회, 출전자격 TEST, 예선전을 거쳐 최종 선발된 16개 팀들이 2005년도 SoC Robot War의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3일간 펼쳐진 이번 대회에

서는 첫날 16강전 경기를 시작으로 둘째 날 8강 경기,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5일 결승전이 펼쳐졌다. 토너먼트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매 경기마다 많은 역전극이 펼쳐졌으며, 작년에 좋은 성적들을 거두었던 팀들이 대거 탈락함으로써 많은 이번들이 속출하였다. 이번 대회 우승은 작년대회에서 쉽게 본선대회에 오르지 못하였던 동서울대학교 Chips 팀이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Crow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3위는 경희대학교 돌쇠팀, 4위는 서강대/아주대의 A.S.C 팀이 차지하였다. 지능형 SoC Robot War는 매해 개최되는 지능형 로봇대회로 2006년도 대회는 4월 1일부터 인터넷(<http://www.socrobotwar>)을 통해 접수 받는다.

SoC 태권 로봇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SoC 태권로봇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간의 태권도 대회로 외부 조작없이 로봇 스스로 인식, 판단, 행동 하는 로봇 경기이다. 로봇에 카메라와 두뇌보드가 장착되어 있어 상대로봇



〈그림 16〉 로봇워 경기 장면

〈표 2〉 SoC Robot War 수상팀

| 상 종류 | 팀 명 | 소속 |
|---------------|-------|---------|
| 우승 (산업자원부장관상) | Chips | 동서대학교 |
| 준우승(특허청장상) | Crow | 충남대학교 |
| 3위 (SIPAC상) | 돌쇠 | 경희대학교 |
| 4위 (에이디칩스상) | A.S.C | 서강대/아주대 |

의 형태를 인식, 거리 및 위치를 판단하여 공격 또는 방어 동작들을 취하게 된다. 올해 경기에서는 총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작년 SoC Robot War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던 서경대학교 M2팀이 우승을, 그 뒤를 이어 삼성소프트웨어 멤버십의 마루치팀이 준우승을, 3위는 충북대학교 SIG팀이 차지하였다.

〈표 3〉 SoC 태권 로봇 수상팀

| 상 종류 | 팀 명 | 소속 |
|-------------|-----|-------------|
| 우승(특허청장상) | M2 | 서경대학교 |
| 준우승(SIPAC상) | 마루치 | 삼성소프트웨어 멤버십 |
| 3위 | SIG | 충북대학교 |

2005 Wearable PC 경진대회

지난 2005년 11월 4일, 코엑스 인도양홀 특설무대에서 KAIST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SIPAC, 소장 유희준 교수)와 한국차세대PC학회(KING PC)가 국내 최초로 개최한 "Wearable PC 경진대회(부제 Ubiquitous Fashionable Computer Contest)"의 본선이 무대심사로 이루어졌다. 대상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는 컴퓨터를 제작한 KAIST



〈그림 17〉 웨어러블 PC경진대회 참석자 기념촬영

의 '구름속의 산책' 팀이 차지했다.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의 소장인 유희준 교수는 차세대PC시장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 기반이 될 인력 양성 및 전 국민적인 관심유도가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차세대PC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국내최초로 개최되는 교육용행사라는 점 뿐 아니라, 최근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Ubiquitous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대학생들이 직접 제시한다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8〉 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작 "작품명-손으로 말해요"

〈표4〉 Wearable PC 경진대회 수상팀

| 상 종류 | 팀명 | 소속 |
|-----------------|-------------|--------------|
| 정보통신부장관상 | 구름속의 산책 | KAIST |
| 한국차세대PC학회장상 | Bootloader | 아주대학교 |
| 차세대PC산업협회장상 | We Want HAL | 충북대학교 |
| KAIST SIPAC센터장상 | MP 三 | KAIST, 서울대학교 |
| KAIST SIPAC센터장상 | CESL | 충북대학교 |